

대상농장 함평공장

“하이포크”

일본수출 첫 테입꺼어...

국내 최대의 축산전문기업인 (주)대상농장(대표:마재현) 함평공장에서 생산된 얼리지 않은 고급돼지 “하이포크”가 7월 17일,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수출을 개시한다.

그동안 충북음성에 위치한 신선육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전략 수출을 해 왔던 대상농장은 일본수출을 위한 제2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수출회사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.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돼지고기의 완전 수입개방이 된 시점에서 대상농장의 돼지고기 “하이포크”브랜드 그대로 수출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국내 축산업계의 활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.

지난해 고급냉장 돼지고기 “하이포크”가 소비자의 큰 호응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, 대상농장은 부족한 “하이포크”물

량공급의 원활화와 수도권 위주의 공급형태에서 전국적 공급으로의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함평 공장에 위치한 우성식품과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생산시설의 투자 및 국내 최초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랑하는 음성공장의 생산체계 도입에 힘써왔다. 이런 결과에 힘입어 올 4월 14일에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정식 지정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내 돼지고기 수출의 길을 뚫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.

대상농장은 금번 함평공장 “하이포크”의 수출개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정합리화를 통해 일본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을 통해 더욱 수출물량의 확대를 통한 사업구조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.